명이다.

예수의 경우는 이와 또 다르다.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투쟁했다는 이야기는 크게 보아 석가의 소명 전야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가 공생애에 발을 내딛는 계기를 마르코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는 갈릴래아로 갔다"(1, 14)라고 서술한다.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정치적 사건이 그의 소명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체포는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소명은 '때'에 대한 인식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생애의 첫 선언은 '때가 찼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언뜻 공자와 대비해볼 만하다. 예수와 공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공자는 자기 성장의 어느 단계를 소명(天命)과 결부시킨 데 반해 예수는 바로 역사적인 때를 자기 소명의 때로 보았다.

바울로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바울로의 경우는 위의 세 가지와 상당히 다르다. 바울로의 소명의식이 위의 경우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병행시켜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바울로의 소명

바울로가 받은 소명은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는 기묘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 소명을 실천에 옮기는 일 때문에 동료들에게서 시련을 받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받은 소명을 예수의 직계제자들이 회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로가 소명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생애를 서술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과 투쟁하려고 반론을 제기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그런 발언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그의 전향과 소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발언을 보자.

바울로는 투쟁의 글로 유명한 갈라디아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오, 사람을 통하여 된 것도 아니오, 예수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임명받아 사도가 된 나 바울로는……"(갈라 1, 1).

이 말의 원문은 "바울로, 사도(apostolos),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중요한 편지들이 다 그렇다. 로마서의 서두도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고 고린토전서는 "바울로, 사도로 부름받은" 순으로 되어 있다. 도대체 이런 식의 편지어법은 일찍이 없었다. 어떻게 편지 서두에 자기 이름을 가장 먼저 세우고 그리스도교회 안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사도'라는 말을 그 뒤에 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소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입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밝힐 것은 '사도'라는 말이다.